

News & Views

국내동향

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과제 43개 확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관련 43개 과제를 최근 확정, 발표했다.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이란 통상산업부가 국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켜 환경오염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관련법을 제정했다. 이 사업은 산업환경문제를 원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환경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며 생기원이 총괄 주관기관이다. 기술개발분야는 철강, 비철금속, 도금, 주물, 염색, 피혁, 제지, 석유화학, 시멘트, 집진, 소각, 토양오염, 자원재이용 등으로 각 분야의 장단기 과제를 수요자중심으로 수행하게 된다. 생기원은 지난 5월 서울암면 등 총 71개업체의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43개 과제를 이번에 확정했다. 이들 과제는 이달부터 내년 7월말까지 1년간에 걸쳐 수행되며 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계속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 사업과 관련, 다음달 8일 양재동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97. 08. 27>

통산부, 25개 중기거점 기술개발 연구기획과제 선정

통산산업부는 내년도 중기거점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과제로 △인텔리전트 PC TV △ 광응용 디지털 핵심요소기술 △ CATV/CCTV/S CAD용광 송수신 시스템 △ 항공기용 엔진 등 총 2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이들 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 보고서를 접수하며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자신문 '97. 08. 29>

OECD 국가와 기술교류협력 활발해질 전망

앞으로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간 정보통신, 항공, 우주, 광응용기기 등 첨단기술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OECD 회원국과의 기술교류 협력대상으로 정보통신, 항공 우주 등 13개 분야 5백개 기업 및 1백50개 유관기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교류협력분야 및 대상국가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등 2개국, 광응용기기는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등 4개국, 각각 꼽혔으며 항공, 우주는 벨기에, 스페인 등 2개국, 센서류는 일본이, 공장자동화는 미국과 포르투갈 등 2개국 선정됐다. 또 반도체 MIMC(Mos Micro Chip)와 위성통신용 무선기기는 미국이 기술교류, 협력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공은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국내 업계에 상세히 제공하고 해당기술의 교류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종 기술협력이 이루어 질 때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전자신문 '97. 09. 01>

신기술 창업지원단 설립

과학기술처와 한구과학기술원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창업지원센터가 '신기술창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과거처는 신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를 설립키로 하고 4일 대덕 KAIST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권숙일 과기처장관, 박태원 KAIST이사장,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정명세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 회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기처 권오갑 기술정책국장은 '신기술창업지원단'의 확대개편에 대해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구기관 육성을 통해 구축된 전문인력, 시설, 기술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신기술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신기술 창업 지원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관리기관이 되어 출연연구소별로 수행해오던 연구성과 확산사업, KAIST의 기업창업보육센터(TBI)와 기술혁신센터(TIC)등으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수행됐다. 신기술창업지원단은 이 같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기능이관과 함께 건설예정인 KAIST의 첨단 기술실용화센터(HTC)까지 관장하게돼 신기술창업 지원기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매일경제 '97. 09. 03>

인터넷 연구인력은행 개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최근 인터넷에 우수 연구·기술 인력의 채용과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은행인 「R&D맨파워뱅크」를 개설했다. 이 연구인력은행에서는 기업과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특히 구직자는 학력, 경력, 희망 취업분야와 3백자 정도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 또 산기협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연구인력의 동향, 연구인력의 양성과 지원정책 현황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 제도안내, 전문연구기관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http://kita.technet.or.kr>」이다. 한편, 산기협은 오는 10월 23일~24일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업연구소와 우수연구인력이 만날 수 있는 「'97 우수연구원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97.09.05>

생산기술연구원, 「온라인 신기술복덕방」개설

생산기술연구원 무료로 서비스 PC통신으로 기술에 관한 상담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기술복덕방」이 개설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PC통신으로도 신기술 관련자료 검색 및 기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신기술복덕방을 민간 PC통신업체인 KITEL에 개설, 지난 1일부터 서비스중이다. 이에 따라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창업예비자 및 기술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신기술복덕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01410(또는 01411)으로 하이텔에 들어간 뒤 초기화면에서 「KITEL」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여기서 「GO MART」로 들어가면 누구나 자유로이 정보를 검색하고 보유기술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으며 기술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복덕방에는 현재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 1천4백여건, 정부 출연연구소의 공개기술 8백여건 및 개인 등록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이 복덕방은 이들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와 함께 기업의 기술적 애로를 전문가들이 통신상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기술클리닉」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경제 '97. 09. 08>

통산부, 연구용 수입건본품 특소세 면세 확인절차 없앤다.

앞으로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건본품에 대해 특별소비세의 면세절차와 사후관리기간이 대폭 간소화되며 중소기업 창업범위도 창업자에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통산산업부는 지난 5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완화조치로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건본품에 대해 특소세 면제를 위한 별도 확인절차의 삭제와 △ 중소기업 창업인정범위

확대 △ 수출선수금,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제한 폐지 등 6개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특소세의 면제절차는 사라지며 특소세 사후관리기관 관세면세 사후관리기간과 형평을 맞추는 선에서 조정된다. 또 폐업한 기업을 타인이 인수, 동종 사업을 계속할 경우와 폐업 후 다시 동종 사업을 창업할 경우 종전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의 폐업이 아니면 타인이 인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폐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가 다시 동종의 사업을 창업할 때도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사의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 지사간 거래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는 외국의 수입자처럼 본지사간 선대허용이 자유롭게 된다.

<전자신문 '97. 09. 08>

한·일 초고속망 활용 공동연구

정보통신부는 한·일간 초고속 선도시험망을 통해 과학기술, 의료, 정보통신, 교육 등의 응용서비스를 공동으로 실험하기로 했다. 또한 초고속 위성통신 공동실험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99년까지 1단계로 45Mbps급 용량의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고속 선도시험망 공동실험은 양국을 해저광케이블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국내 초고속통신망으로 실험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험은 우선 천문관측, 전리층관측, 원격가상현실시스템, 원격척추수술, 암공동연구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원격의료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서울대의대와 일본 국립암센터간의 암공동연구, 연세대 의대와 일본 아이치 의대간의 원격척추수술회의 시스템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층촬영영상 수술사진 등을 초고속망으로 교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위성통신 실험은 2002년까지 155Mbps급의 실험을 완료하기로 하고 실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동 실험기관을 우리나라가 전파연구소, 한국통신,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천문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등이며 일본은 통신종합연구소, NTT, KDD, 아이치의대, 국립암센터가 참여한다. 실험기관은 앞으로 민간부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국이 협의해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97. 09. 10>

정통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117억 지원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기술과 산업체 공통애로기술을 대학과 기업체가 협력, 개발토록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올해 총 1백 17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97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계획을 확정,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을 활용해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산-학 또는 산-학-연 공동협력팀을 선정, 총 개발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과제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과제의 시장성과 파급효과 등 사업성평가를 외부전문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세부 내용은 PC통신(go MIC)과 인터넷(<http://arom.etri.re.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97.09. 12>

과기처, R&D 예산 5% 이상

민·군경용기술개발에 투자

과학기술처는 최근 「민·군경용기술개발 실무추진위원회」를 열고 국가연구개발예산의 5% 이상을 민·군 경용기술에 투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국경용기술개발에 관한 특별

법」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기술개발 이전, 표준화, 정보교류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되며 정부는 매년 과기처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민·군겸용 기술투자예산과 관련 국가연구개발 총예산의 5%이상을 확보하며 KIST,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등 출연연구소를 민군겸용연구기관으로 지정, 연구개발의 집중화를 실현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국유 재산의 대여, 산업 재산권 무산양여 등의 지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국방부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등과 함께 공동명으로 제정키로 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97. 09. 13>

'ETRI 저널권위' 인정 받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행하는 계간 학술지 ETRI저널이 최근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최고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SCI(과학인용색인)에 등록되는 학술지로 선정됐다. 정보통신분야에서 SCI에 등록되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연구소는 미국의 ATT와 IBM, 그리고 영국의 BT 3개뿐이며 ETRI가 4번째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ETRI는 93년 10월 우리 말 학술지인 '전자통신'을 영문 ETRI저널로 변경, 계간으로 발행해왔으며 세계적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독창성과 기술효과 등이 인정된 논문만 게재해왔다. SCI가 검토기준으로 삼았던 논문인용도에 따르면 ETRI저널은 전세계 1백50여개의 전기전자공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 30~40위, 30여개의 통신공학분야 학술지 중에서는 7~8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학인용색인'을 발행하는 과학정보기구는 지난 58년 미국의 유진 가필드박사가 설립해 기업화에 성공했다. 이 기구에 의해 SCI색인에 포함되는 학술지는 국제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어서 한 국가의 기초과학을 가능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어왔다. ISI는 10만 여종의 학술지중 3천3백여 개를 선정, 이곳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도를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천여 개의 학술지가 SCI에 등록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현재 SCI에 포함된 국내 학술지저널은 대학화학회, 한국물리학회, 한국분자생물학회 등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3종뿐이었다. <조선일보 '97. 09. 23>

과학재단, '97년 특정기초연구 지원과제 391개 확정

정부가 대학의 기초과학분야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97 특정기초연구 지원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한국과학재단은 올해의 특정기초연구과제로 전자, 컴퓨터공학 등 8개분야 3백91개 과제를 선정, 총 1백99억원의 자금을 지원키고 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분야별 과제 및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전자, 컴퓨터 등 정보산업기술 분야가 12개 신규과제를 포함, 총 64개 연구과제에 30억4천4백만 원이 책정됐고 신소재개발 분야는 51과제 23억2천4백만원, 기계분야는 39개과제 20억1천4백만원 등의 순이었다. 과학재단은 특히 향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전자, 정보 통신분야 11개 단기과제와 4개 장기과제를 별도로 선정, 각각 7억5천만원, 4억9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자신문 '97. 09. 23>

통산부, 산업기술 관련예산 사상 첫 1 조원 돌파

정부의 산업기술관련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기술관련 예산은 올해의 8천6백40억6천4백만원보다 17.9% 증가한 1조1백86억9천9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87년 기술개발사업비 1백억 원에 비하면 11년만에 무려 1백배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중심이 기술혁신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기관별 기술관련 예산은 통산부가 작년보다 16.2% 증가한 9천60억원, 중소기업청이 25.6% 늘어난 6백42억원, 국립기술품질원이 26.4% 증가한 1백68억원, 특허청이 58.0% 늘어난 3백 1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자신문 '97. 09. 24>

<담당: 최경호>

(Tel : 02-250-3033)